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 출범

‘제5기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 출범식 행사가 5월 26일(금)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과기부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의 전공 대학생 가운데 우수한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5기의 논문연구회부터는 운영 프로그램이 대폭 변화돼 질적 도약을 모색한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원자력 전공 학생으로서의 지식 터득을 목표로

로 한데 반해, 올해부터는 차세대 원자력 리더 육성을 목표로 대학 교과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실무, 국제정치, 산업적 측면에 대한 많은 강좌가 개설된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청원 국립중앙과학관장의 특별 강연에 이어 정법진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책임지도 교수로 임명되었다.

알제리 원자력협력단 방한

알제리 원자력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한-알제리간 원자력협력 확대 논의를 위해 5월 21일 ~27일까지 방한하였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1월에 이뤄졌던 우리측 원자력 대표단의 알제리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알제리측에서는 연구용원자로이용, 방사선 및 동위원소시설, 원자력인력교육 및 원자력의 산업적, 의학적 응용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고 과학기술부는 밝혔다.

대표단은 방한 기간동안 세트랙아이(주), 삼영유니

텍(주), 호진산업기연(주), 나우기연(주),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핵연료주식회사, 영광발전소, 한국원자력 연구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양국간 원자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알제리는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인 자원 부국으로 우리나라와는 1990년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올해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국민방문을 계기로 급속히 양국간 상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 내용출처 : 디지털타임스, 2006. 5. 23

김포공항에 암센터 들어선다

김포공항에 암 치료 분야를 특화한 암센터가 들어선다. 공항에 암센터가 들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척추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들병원(원장 이상호)은 현 김포공항 화물청사 건물을 임대, 첨단 암 진단 설비를 갖춘 500평 규모의 암센터를 2007년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우리들병원은 이미 김포공항 청사 안에 전문의 8명 등 70여명의 진료인력을 갖춘 척추전문병원을 운영

중이다.

이 병원이 이번에 새롭게 개원을 준비 중인 병원은 총 3천500평 규모의 3층 건물로 1층에는 진료실, 영상의학실, 사이버나이프센터 등이 들어서며 2층에는 척추질환 환자용 병실(200~250병상)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 3층은 수술실 및 연구실, 식당 등이 예정돼 있다.

병원측은 이 가운데 1층 500여평의 공간에 300억

원을 투입, 첨단 암센터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암센터에는 첨단 암치료 장비인 ‘사이버나이프(Cyber-Knife)’와 ‘양전자단층촬영기(PET-CT)’ 등이 설치된다. 로봇팔에서 나오는 방사선 빔을 이용해 종양을 제거하는 사이버나이프는 100억원대를 호가하는 첨단 장비로 국내에는 강남성모병원과 원자력병원 등 2곳에만 설치돼 있다.

이 병원은 암센터를 통해 지방과 동남아 지역의 해

외 환자 유치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암센터에 도입되는 사이버나이프와 PET-CT는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최첨단 기종으로 정했다”면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암 치료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교통이 편리한 공항의 이점이 알려지면 해외 환자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용출처 : 연합뉴스, 2006. 5. 7

해의 동정

일본, TRU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 병설 처분 가능성 열어 두기로

일본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 전기사업 분과회 원자력 부회의 방사성 폐기물 소위원회(위원장 삼도야키오 지구환경 전략 연구기관 이사장)는 5월 22일의 제8회 회합에서 보고서의 골자안을 승인했다.

소위원회는 지층 처분되는 TRU 폐기물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의 병설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굳혔다. TRU 폐기물의 처분 비용은 일본 겐쇼오(原燃), 원자력 연구 개발기구(JAEA), 전력회사에서 거출된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2007년의 통상 국회에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NUMO법)의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의 골자는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영국, 프랑스로부터의 반환 폐기물, (3)장 반감기 저발열 방사성 폐기물(TRU 폐기물) 등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TRU 폐기물 중 지층 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고준위 폐기물의 최종 처분과 같은 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원자력 위원회가 인정한 병설 처분이 가능하도록 고준위 폐기물과 TRU 폐기물의 처분 실시 주체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단지 병설 처분에는 현지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설계에서는 NUMO법의 인가 법인이 처분 사

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병설 처분은 선택 가능한 사업 옵션 형태가 되도록 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기구(NUMO)가 다루는 경우에는 업무 추가의 신청 및 인가 형태로 대응하기로 했다.

TRU 폐기물의 지층 처분사업 비용은 (1)일본 국내에서의 재처리와 MOX(우라늄·플루토늄 혼합 산화물) 연료 가공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본 겐쇼오가, (2)토카이 재처리 공장 등에서의 발생 분은 일본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JAEA)가, (3)영국, 프랑스로부터의 반환 폐기물의 발생 분은 전력회사가 담당하고, 국가가 거출금 단가를 산정한 후 이들 발생자가 필요액을 연도마다 거출하게 된다. 이들은 원자력 환경 정비 촉진·자금관리 센터 등의 외부 자금 관리 법인이 관리되지만 고준위 폐기물과는 별도 계산으로 관리된다.

한편 해외로부터의 반환 폐기물에 대해서는 영국이 제안하고 있는 저준위 폐기물과 방사선 영향이 등가인 고준위 폐기물로 교환·반환하는 내용의 타당성을 동 소위원회가 승인했다. 일본의 전력 업계는 약 650억 엔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지만 일본 국내에서의 저장·처분 비용과 해외 수송 등의 비용으로 약 2천억 엔(할인율 2% 환산)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가 제안한 아스팔트 교체 폐기체로부터 유리 고화체로의 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원자력 위원